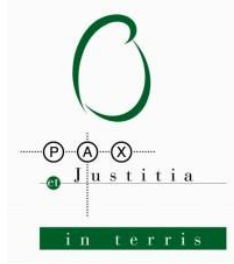


CATHOLIC DIOCESE OF NAGOYA
2-6-35 AOI HIGASHI-KU
NAGOYA, 461-0004 JAPAN
T E L :81-52-935-2223
F A X :81-52-935-2254
EMAIL:curia@nagoya.catholic.jp



カトリック名古屋教区
461-0004 名古屋市東区葵 2-6-35
電 話 : 052-935-2223
ファックス : 052-935-2254
Eメール : curia@nagoya.catholic.jp

Prot.No26/2024

2024년 5월 9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주교 나고야교구장 마쯔우라 고로 주교

노토반도 지진 피해에 대한 보고와 대응(6)

+주님의 평화

노토반도 지진으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기도와 전국에서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성금입니다. 교회와 여러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해외에서도 선의가 전달되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상황입니다만, 보도 등을 통해 아시다시피 상수도 등 인프라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특히 노토(能登)의 북부 피해 지역과 액상화 피해가 큰 우치나다(内灘)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너진 가옥의 해체는커녕 철거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이 건설하는 가설 주택은 4월 말 현재 3368 가구가 완공됐지만, 현은 8월 중 약 6400 가구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4606 명의 사람들이 학교나 피해지역에서 떨어진 호텔 등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부흥에 대해

향후의 교회 부흥 지침과 모금된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큰 방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 나고야 교구에 모인 성금은 1억 4천만 엔을 넘어섰습니다. 이 성금은 피해 신자분들의 일시지원금과 물품 구입, 그리고 사목 협력을 위해 달려와 주신 신부님들의 인건비와 기타 제반 경비를 위해 긴급히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성당 건물의 복구와 건축, 땅이 갈라진 부지 정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 건물 진단과 토지 조사 및 견적을 통해 무엇을 어디까지 복구하고 재건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지역 지원 체제에 대해

교구는 카리타스 재팬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거점으로 지금까지는 하쿠이(羽咋) 성당을 여성들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나나오(七尾) 성당에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기에 그곳에서 나나오(七尾)시 근교와 와지마(輪島)시까지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해 발생 초기부터 협력해 주신 가톨릭 중앙협의회 ERST(긴급대응지원팀)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3개월(4월 12일까지)이었지만, 파견 연장을 요청하여 추가로 3개월 더 파견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은 전면적인 지원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관여와 조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원활동을 해주신 프란치스코회 모토다 카츠야 신부님도 5월 12일을 끝으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며, 신언회 인센 신부님도 5월 말로 파견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원 체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지진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의 긴급 지원 체제에서 부흥을 위한 지속적인 복구 지원 체제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스태프,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해 피해자를 위한 기도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모든 이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희망과 신뢰를 담아 기도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와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1년 2월 16일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인가)